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계: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Emphasis on
Bicycle Riding Club Members

이연주*, 전민주**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Yeon-Ju Lee(sport-freeman@hanmail.net)*, Min-Ju Jeon(leisure4all@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거주 자전거 동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목적표집법을 이용하여 265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전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배경변인 중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영향력으로 볼 때, 자전거 동호인들의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데 연령이나 소득과 같은 배경변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여가활동 | 조직동일시 | 조직몰입 | 사회정체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the emphasis on bicycle riding club members. A total of 265 respondents were sele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three meaningful results were extract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basis of individu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Second, the age and the monthly income of riding club participants partly influenced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directly or indirectly had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b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s a result, we found the fact that beside the degree of bicycle riding participation, the age and the monthly income of riding club participants also have influences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keyword : | Leisure Activity |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 Social Identit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호회(同好會)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동아리, 클럽(club), 씨클(circle), 인터넷 커뮤니티라고도 하며[10],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동호회형식의 여가조직에 소속되어 여가를 즐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6]에 의하면 전체 국민 중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2.8%로 나타났으며 현재 참여하는 동호회 수는 평균 2개로 나타났다. 동호회와 같은 여가조직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취미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조직은 의무적으로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고, 구성원간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소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여가조직은 쉽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는 특징이 있다. 주5일 근무제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이 각종 동호회를 통해 원활히 소통할 때, 개인의 행복증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4][17].

이렇듯 동호회는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여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동호인들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만 관심을 가질 뿐, 동호인 조직운영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동호인의 여가 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채 자생적으로 만들어 졌다 조용히 소멸해가는 우리 사회의 여가 동호회 조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 여가조직관련 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동호회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010년 체육백서[7]에 의하면 생활체육 참여인구 중 자전거 참여인구가 5.5%로 5번째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최근들어 자전거 참가인구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종목으로서 10위권이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기는 주류스포츠라 할 수 있으며, 대한사이클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내 자전거 동호인 수는 80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14].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여가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여가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시 혼자서 타기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동료와 함께 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동호인은 동호회라는 여가조직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전거 참가자를 의미한다.

동호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지속하는 동호인들은 구성원들 간의 접촉이 불가피하며 자전거 동호회라는 그들만의 여가 사회세계(social world)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정체성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이론분야로 발전했다. 하나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role)이 내면화된 정체성[30][31]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인종, 종교, 계급과 같은 사회범주(social category)를 구분하고 자신이 속한 범주와 동일시(identification)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성[32][33]이다. 전자는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체성 중 특정 정체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정체성 현출성(salience) 이론으로 발전했고, 후자는 집단간(intergroup) 혹은 집단내(intragroup)에서의 개인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집단 응집력(cohesiveness)이나 동일시(identification) 이론으로 발전했다[12]. 따라서 전자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자전거 동호회와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내면화하여 형성된 정체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개인이 특정 동호인 집단에 소속되어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직동일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조직에 대한 의미부여, 조직과 자신과의 관련성 설정, 조직효율성 추구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며 한 개인의 조직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29]이고, 조직연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차지해 왔다[19]. 그렇지만 조직동일시 연구는 대부분 공식적인 직장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가조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동일시 연구를 자발적인 여가

조직으로서의 동호인조직에 적용하여 연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조직동일시는 특정 동호회 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신이 속한 동호회에 소속감을 갖고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사회정체성을 의미한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동일시이자,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충성심,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로 정의[9]되기도 하며, 개인이 특정 조직과 동일시하고 공헌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로 설명하기도 한다[27]. 이 연구에서의 조직몰입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신이 속한 동호회의 가치와 목표를 개인의 목표와 가치시스템으로 통합시켜 소속 여가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구성개념이며 인과관계에서 조직동일시가 선행한다[2]. 조직동일시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 조직에만 국한된 심리적 구성개념 즉, 자신이 속한 조직에만 한정된 구성개념인 반면, 조직 몰입은 보편적 개념이다. 한 조직 성원이 자신의 조직과 공동 운명을 지각함이 없이도 조직에 대해 몰입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5], 조직동일시를 하지 않고도 개인은 높은 조직몰입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는 그 개인이 조직과의 공동 운명에 대한 지각없이도 그 조직은 자신의 경력에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볼 경우 더 강한 조직몰입이 나타날 수 있다[2]. 조직동일시는 개인 개인정체성과 조직 정체성간의 일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 이익을 위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개인은 이런 행동이나 노력이 곧 자신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지각하게 된다. 조직동일시와는 달리 조직몰입은 행동적 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직동일시의 결과로 조직몰입이 나타나는 것이다[22][23][35].

그동안의 조직동일시나 조직몰입연구는 직장조직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약간의 연구에서 여가상황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센터에서 제공하는 여가프로그램 참가자의 조직동일시를 연구한 경우도 있고[1][20], 대학생들의

동아리활동과 대학 동일시를 연구한 경우도 있으며[5], 여가정체성의 하위요인차원에서 연구되기도 하였다 [8][11][13]. 그렇지만 동호인조직 자체의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을 다루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호인 조직에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가할 때, 그들은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과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배경변인에 따라 자전거 동호인의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배경변인 중 연령과 소득수준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참가정도(기간, 빈도, 시간)는 직·간접적으로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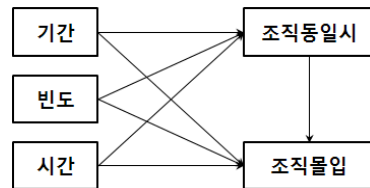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자전거 동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2012년 4월초부터 9월 말까지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00명의 대상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회수 설문과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65부의 설문 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185	69.8
	여성	80	30.2
결혼	기혼	191	72.1
	미혼	74	27.9
학력	국졸	3	1.1
	중졸	22	8.3
	고졸	82	30.9
	대재	25	9.4
	대졸	120	45.3
	대학원이상	13	4.9
연령대	20대	29	10.9
	30대	33	12.5
	40대	110	41.5
	50대	70	26.4
	60대이상	23	8.7
소득	100만원미만	17	6.4
	100만원대	21	7.9
	200만원대	93	35.1
	300만원대	68	25.7
	400만원대	26	9.8
	500만원대	21	7.9
	600만원이상	19	7.2
	합계	265	100.0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85명(69.8%), 여성이 80명(30.2%)로 남성이 많았고, 결혼은 기혼자가 191명(72.1%), 미혼자가 74명(27.9%)로 기혼자가 많이 표집되었다. 학력은 국졸부터 대학원 졸업이상까지 중 대졸이 120명(4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고졸이 82명(30.9%)로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중 40대가 110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0명(26.4%)으로 두 번째로 많이 표집되었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중 200만원대가 93명(35.1%)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고, 300만원대가 68명(25.7%)으로 두 번째로 많이 표집되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구성요소 및 문항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그 중 배경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월소득을 조사하였다. 이들 문항 중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소득수준은 “199만원 이하”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중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여 폐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연령만 직접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인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	1	5
	연령	1	
	결혼여부	1	
	학력	1	
	월소득	1	
참가정도	기간	1	3
	빈도	1	
	시간	1	
	여가동일시	5	
조직몰입		15	15
합 계			28

참가정도는 기간과 빈도, 그리고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간은 취미활동을 위하여 자전거 라이딩 한 기간을 년과 월로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빈도는 자전거를 얼마나 자주 타는지 폐쇄형으로 질문하였는데, “한 달에 한번”은 1점,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2점, “일주일에 2-3일정도”는 3점, “일주일에 4-5일정도” 4점, “거의 매일”은 5점을 부여하였다. 시간은 한번 라이딩을 해서 지속하는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기입하도록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직동일시는 Mael & Tetrick[2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 5문항을 최훈태[36]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자전거 동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2개의 하위요인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Mowday & Steers[27]의 조직 몰입 설문지(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OCQ)를 연구자가 직접번안하고 자전거 동호인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이 부과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타당도 및 신뢰도

조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체육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자전거 동호인으로서의 경력 이 풍부한 4년제 대학 교수 1명,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을 전공한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사이클 선수출신으로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중인 자전거 전문가 1명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 적합성을 점검받았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요인분석을, 회전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법을 이용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다. 신뢰도의 최소기준은 $\alpha=0.6$ 으로 설정하였다[18].

표 3. 조직동일시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우리 동호회가 잘되면 곧 내가 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867
다른 사람이 우리 동호회를 칭찬할 때 마치 나에 대한 칭찬으로 느껴진다.	.846
언론매체에서 우리 동호회를 비난한다면 나는 난처함을 느낄 것이다.	.821
다른 사람이 우리 동호회를 비판할 때 나는 모욕감을 느낀다.	.812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를 호칭할 때 나는 항상 '우리'라고 말한다.	.811
고유값=3.456, %분산=69.128, 신뢰도=.888	

조직동일시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설계된 문항 그대로 1개 요인 총 5개 문항이 도출되어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 척도는 조직동일시 변인의 69.1%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값이 0.888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몰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설계된 문항 15문항 중 13문항이 최종 선택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모두 2개 요인으로 최초 개발자의 요인구조와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삭제된 문항은 3번 문항 “우리 동호회에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다”와 7번 문항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로 3번 문항은 추출된 두 요인 모두에서 요인 적재값이 0.553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에 저해되는 문제로 삭제하였으며, 7번 문항은 별개의 제 3요인으로 구분되어 이

론적 배경과 배치되는 관계로 삭제되었다.

표 4. 조직몰입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나에게 있어서 우리 동호회는 라이딩하는데 다른 어떠한 동호회보다도 가장 좋다.	.772	.219
우리 동호회는 나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정말 최상의 조건이다.	.759	.097
나는 우리 동호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752	.242
나는 정말로 우리 동호회가 잘 운영되게 하는데 관심이 많다.	.750	.219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동호회가 라이딩하기 매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한다.	.736	.161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동호회의 가치가 매우 비슷하다.	.713	.013
나는 우리 동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690	.277
내가 가입당시 현재의 동호회를 선택한 것은 나의 탁월한 결정이었다.	.681	.321
우리 동호회에 남기 위해 어떠한 임무(역할)이라도 수행할 용의가 있다.	.637	.320
현재 소속된 동호회에 남아서는 얻을 것이 별로 없다.	.184	.894
이별이 없는 한 현재의 동호회를 떠나고 싶다.	.145	.835
나는 우리 동호회의 운영방향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171	.753
내가 현재 소속된 동호회를 선택한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303	.733
고유값	6.136	1.810
%분산	47.198	13.926
%누적	47.198	61.124
신뢰도	.903	.850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출된 2개 요인 13개 문항은 전체 조직몰입 변인을 6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요인1과 요인2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0.903과 0.850으로 매우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조직몰입의 요인2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문항은 역코딩 되었으며, 전체 조직몰입은 하위 두 개의 요인의 평균값으로 통계분석에 투입되었다.

4. 조사절차

본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초부터 9월 말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요원이 직접 서울의 한강 및 중랑천을 찾아 자전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방식과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리점에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설문은 지인을 통해 특정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요원에게 설문에 앞서 해당 동호인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하였다. 모든 설문은 동호인들에게 배포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실증연구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윈도우용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통계기법으로는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였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조사대상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결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해본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1						
2	-.033	1					
3	.134*	.204***	1				
4	.262***	-.072	.172**	1			
5	.340***	-.037	.225***	.148*	1		
6	.192**	.264***	.181**	.125*	.012	1	
7	.189**	.291***	.120	.146*	.262***	.623***	1

* $\rho < .05$ ** $\rho < .01$ *** $\rho < .001$, 1:연령, 2:소득, 3:기간, 4:빈도, 5:시간, 6:동일시, 7:조직몰입

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의 상관계수가 0.623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판단기준인 0.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이 서로 다른 구성 개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투입된 모든 변인들 중 연령과 소득 간의 상관, 소득과 빈도, 시간 간의 상관, 기간과 조직몰입의 상관, 시간과 조직동일시 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차이

자전거 동호인들의 배경변인(성별, 결혼여부, 학력)에 따라 자전거 라이딩 참가정도(기간, 빈도, 시간), 조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차이

변인		N	기간	빈도	시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성별	남성	185	61.57±53.34	2.70±1.01	191.242±100.88	3.62±.91	3.87±.65
	여성	80	25.47±24.48	2.63±.81	162.700±96.37	3.62±.92	3.84±.67
	<i>t</i>		5.791***	.511	2.143*	-.001	.333
결혼	기혼	191	58.37±53.46	2.75±.89	203.80±103.58	3.75±.88	3.98±.63
	미혼	74	30.82±28.71	2.50±1.06	127.97±64.84	3.28±.89	3.54±.62
	<i>t</i>		4.201***	1.958	5.864***	3.928***	5.075***
학력	고졸이하	107	51.54±43.72	2.86±1.00	214.48±109.91	3.70±.88	4.02±.64
	대졸이상	133	55.88±55.34	2.59±.83	170.67±85.76	3.65±.91	3.84±.63
	<i>t</i>		-.663	2.322*	3.468***	.426	2.227*

* $\rho < .05$ *** $\rho < .001$

표 7. 배경변인이 참가정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간		빈도		시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β	t	β	t	β	t	β	t	β	t
연령	.141	2.358*	.260	4.370***	.339	5.827***	.201	3.445***	.199	3.439***
월소득	.209	3.483***	-.064	-1.070	-.025	-.439	.271	4.644***	.298	5.146***
	$R^2=.061, F=8.582***$		$R^2=.073, F=10.287***$		$R^2=.116, F=17.177***$		$R^2=.110, F=16.205***$		$R^2=.124, F=18.583***$	

* $p<.05$ *** $p<.001$

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학력은 설문문항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재코딩되었고, 대학재학생은 제거된 상태로 통계분석에 투입 되었다.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참가정도의 기간과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에 더 오랜기간 참가했고, 한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참가정도의 기간과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오랜 기간 라이딩에 참가하였고, 한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또한 기혼자들이 미혼자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 참가정도의 빈도와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조직몰입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졸이하의 참가자가 대졸이상의 참가자보다 더 자주 라이딩에 참가하였고, 한번 참가해서도 더 오랜 시간을 라이딩 하였으며, 조직몰입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났다.

3. 배경변인이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전거 동호인의 배경변인이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일괄투입방식(enter)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이 도출되었다.

통계분석결과 배경변인 중 연령은 투입된 기간, 빈도, 시간은 물론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도 정적인 방향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은 투입된 기간과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만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참가 빈도와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가기간이 오래되었으며, 자주 참가하며, 한번 참가하여 오랜 시간동안 지속할 뿐만 아니라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 또한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오랜 기간 라이딩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전거 동호인의 라이딩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영향력의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단계투입방식(stepwise)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도출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참가정도 중 기간은 조직동일시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도는 어떠한 영향도 없었으며, 참가시간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

구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	
	β	t	β	t
기간	.173	2.751**	.049	.800
빈도	.102	1.646	.103	1.694
시간	-.042	-.674	.235	3.842***
	$R^2=.043, F=3.955**$		$R^2=.062, F=7.815***$	

** $p<.01$ *** $p<.001$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를 매개로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에 조직동일시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9. 조직동일시 매개변인 포함한 영향력

구분	조직몰입	
	β	t
기간	-.059	-1.224
빈도	.039	.830
시간	.262	5.536***
조직동일시	.626	13.383***
$R^2=.457, F=54.639***$		

* $p<.05$ ** $p<.01$ *** $p<.001$

참가정도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8]과 [표 9]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무의미한 경로를 제거하고 분석을 재실 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직간접 인과 효과

구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기간	→ 동일시	.181**	-	.181
	→ 몰입	-	.066	.066
빈도	→ 동일시	-	-	-
	→ 몰입	-	-	-
시간	→ 동일시	-	-	-
	→ 몰입	.262***	-	.262
동일시	→ 몰입	.366***	-	.366

*** $p<.001$

기간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조직동일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0.066). 빈도는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0.262). 매개역할을 하는 조직동일시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효과=0.366).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진 참가정도가 조직동일

시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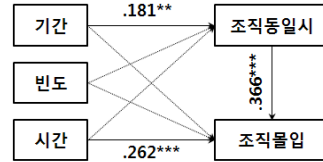


그림 2. 결과모형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전거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전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오래 참가하였고, 한번 참가하면 더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희중과 윤양진[16]은 산악자전거 동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참가 기간, 빈도, 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던 2004년 현재라는 시대의 차이와 자전거의 종류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자전거 종류를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우 어려서부터의 자전거경험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여성도 아무런 부담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단 동호회에 참가하면 동호회에 갖는 마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더 오랜 기간 참가하였고, 한번 참가하면 더 긴 시간 자전거를 타며,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기

혼참가자의 경우는 미혼보다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여유가 더 많으며, 가족 관계로 인해 주말에 여가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참가시간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50대가 동호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6]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서 동호회활동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6][20][21].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이하의 집단이 대졸이상보다 참가 빈도와 시간,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고졸이하의 참가자들은 대졸이상의 참가자들보다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주말과 주중에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동호회 조직에 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동일시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15][20]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졸이하의 집단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조직에 몰입할 가능성이 대졸이상의 집단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배경변인 중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든 종속변인인 참가 기간, 빈도, 시간,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소득은 참가 기간과 조직동일시,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전거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는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빈도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소득이 높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바쁘게 일을 하는 관계로 시간이 더 부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연령과 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가자의 연령과 소득수준이 조직동일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조직을 동호회 집단으로 본 반면 어떤 연구[15]에서는 운동종목으로 조사하고 어떤 연구[20]에서는 스포츠센터조직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참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참가 기간은 조직동일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만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고, 빈도는 직·간접적으로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며, 시간은 조직몰입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호회 활동을 오래할수록 동호회에 대한 동일시가 강해지며,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만 조직에 충성하며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주 참가한다고 해서 조직동일시나 조직몰입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한번에 오랜시간 참가한다고 해서 조직동일시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중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주말에 오랜 시간동안 라이딩하는 동호인들은 조직동일시는 약하지만 조직몰입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직동일시는 주중과 주말 관계없이 자주 참가하면서 오랜 시간을 동호회 동료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로 함께했을 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고, 동호회에 지속적으로 남고자하는 조직몰입행동은 조직동일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3], 주말에만 오랜 시간 라이딩하는 동호인들에게서 참가시간이 조직몰입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22][26][28][34]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전거 동호인들의 경우도 특정 동호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지속할 때 조직동일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조직몰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는데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참가를 통해 동호회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 하였을 때 조직에 충성하며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주말과 같이 한번에 오랜 시간 라이딩에 참가할수록 조직동일시는 높이지 않더라도 동호회에 충성하고 구성원으로서 지속적

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동호회 조직은 여가활동 참가자의 약 30% 정도가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사회시스템 내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동호회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운영진들조차도 여가시간에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다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자신의 본업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적으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다. 따라서 동호인 조직의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전국 대학의 체육관련 전공생들이 지역사회 동호회원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해 전문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자전거 동호인의 여가활동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자전거 라이딩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배경변인 중 연령과 소득은 참가정도와 조직동일시 및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참가정도는 조직동일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동일시는 여가활동영역에서도 조직몰입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며, 조직동일시를 높이는데 연령과 소득 및 참가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소득과 연령, 참가시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으로 연구자는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의 참가정도는 영향력이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참가정도만으로 이들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요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지속

함으로써 얻게 되는 조직동일시와 조직몰입은 구성원들이 집단정체성을 형성한 체 사회의 다른 일반시민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행동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가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김관진, 이광수,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참가자의 조직동일시가 감정, 고객만족 및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2권, 제4호, pp.155-165, 2008.
- [2] 김원형, “조직 동일시, 조직 몰입, 조직 내재화 변인들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6권, 제1호, pp.12-35, 1993.
- [3] 김원형,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의 선행변수와 결과 변수간의 인과 관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5권, 제2호, pp.83-121, 2002.
- [4] 김정운, 노는 만큼 성공한다, 21세기북스, 2005.
- [5] 김찬호, 스“포츠 동아리 참가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교 동일시 및 학교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3권, pp.999-1010, 2011.
- [6] 문화관광부, 2010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2010.
- [7] 문화체육관광부, 2010체육백서, 2010.
- [8] 박유진, 여가경험과 여가정체성 현출성이 여가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적극형 여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2.
- [9] 박재희, “호텔종사원의 조직동일시가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제11권, 제1호, pp.75-87, 2009.
- [10]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 [11] 이경주, 강은영, “댄스스포츠 동호인의 레크리에

- 이선 전문화가 여가태도 및 여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55-66, 2010.
- [12] 이연주, 프로축구 서포터즈의 정체성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박사학위논문, 2006.
- [13] 이연주, “배드민턴 참가자들의 여가활동 전문화와 여가정체성 및 행복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1권, 제4호, pp.19-30, 2007.
- [14] 일간스포츠, “자전거 문화의 트렌드 ‘하이브리드’”, <http://isplus.joinsmsn.com/>, 2010. 10. 07.
- [15] 장진우, 강효민, “진지한 여가로서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경험 및 여가정체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pp.329-338, 2007.
- [16] 정희중, 윤양진, “산악자전거 동호인의 참여정도와 여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6호, pp.159-172, 2004.
- [17] 조동성, “창조적 행복사회를 설계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여가정책 심포지엄, pp.1-16, 2008.
- [18]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2000.
- [19] 최훈태, 이범찬, “호텔종사원의 조직동일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3권, 제4호, pp.367-382, 2009.
- [20] 한아름, 박세혁,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참가자의 관여도와 조직동일시가 만족도 및 재참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3호, pp.409-422, 2008.
- [21] 황문수, *성인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4.
- [22] D. Abrams, K. Ando, and S. Hinkle,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group: Crosscultural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subject norms as predictors of workers’ turnover intent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3, pp.1027-1040, 1998.
- [23] J. Dutton, J. Dukerich, and C. Harquail, “Organizational image and member identific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9, pp.239-262, 1994.
- [24] F. Mael and L. E. Tetrick, “Identifying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2, pp.813-824, 1992.
- [25] F. Mael and B. E. Ashforth, A re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T. I. Keon and A. C. Bluedorn(Eds.) *proceedings of the midwest Academy of Management*, pp.127-129, Toledo, 1988.
- [26] F. Mael and B. E. Ashforth, “Alumni and their alma mater: A partial test of the reformulated model of organiza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13, No.2, pp.103-123, 1992.
- [27] R. T. Mowday and R. M. Steers,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pp.224-247, 1979.
- [28] C. O’reilly and J. Charma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attachment: The effects of compliance, identification, internalization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1, pp.492-499, 1986.
- [29] A. Smidts, A. Pruyn, and C. Riel, “The impact of employee communication and perceived external prestige o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pp.1051-1061, 2001.
- [30] S. Stryker and P. J. Burk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63, No.4, pp.284-297, 2000.
- [31] S. Stryker, *Symbolic interactionism: A socio-structural version*, Benjamin/Cum-

ings, 1980.

- [32] H. Tajfel,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Vol.223, pp.96-102, 1970.
- [33] J. C. Turner, social id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group formation. In H. Tajfel(Eds.), The social dimension: European development in social psychology, Vol.2, pp.518-538,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34] B. Wiesenfeld, S. Raghun, and G. Garu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mong virtual workers: The role of need for affiliation and perceived work base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nagement, Vol.27, No.2, pp.213-228, 2001.
- [35] B. Zdaniuk and J. Levine, "Group loyalty: Impact of members identification and contributions," Journal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Vol.37, No.6, pp.502-509, 2001.
- [36] 최훈태, 조직구성원의 조직 동일시가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2008.

전 민 주(Min-Ju Jeon)

정회원



- 2007년 2월 : 한림대학교 체육학과 박사수료
- 2012년 11월 현재 :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관심분야> : 관광레저, 운동역학

저 자 소 개

이 연 주(Yeon-Ju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체육학 박사)
- 2012년 11월 현재 : 한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